보성군이 보성행복마루 내 민간투자로 조성된 보성볼링장에 대해 최근 사용을 허가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보성행복마루 내 롤러장(왼쪽), 보성행복마루 내 볼링장 모습. 사진제공=보성군청

# “잠들었던 밤 깨운다” 보성행복마루 볼링장 개장

## 군, 민간투자로 13억원 시설 운영비 절감 효과
## 볼링장 연중무휴…생활체육 활성화·선수 육성

보성군이 보성행복마루 내 민간투자로 조성된 보성볼링장에 대해 최근 사용을 허가하고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7일 군에 따르면 보성볼링장은 혜담 주식회사가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시설로, 보성행복마루 6층에 있으며 중계방송용 레인을 포함한 14개 레인과 7층 휴게공간을 갖추고 있다. 혜담 주식회사는 5층 롤러스케이트장도 함께 운영한다.

볼링장은 연중무휴로 자정까지 운영되며, 롤러스케이트장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퇴근 후와 주말에도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 민간투자로 약 11억원 규모의 시설 조성비를 절감했으며, 향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연간 약 2억원의 운영비 절감 효과도 전망하고 있다.

혜담 주식회사는 전남도·보성군 체육회 등과 협력해 각종 볼링대회를 유치하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육수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보성행복마루’는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1만6160㎡ 규모의 복합 문화 시설이다. 주요 시설은 볼링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스마트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작은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공유부엌, 드림스타트센터, 공유사무실, 방음실, 주민자율공간, 상설전시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서편제보성소리의 전승을 위한 보성소리공연장과 보성군의회, 220여면 주차시설을 함께 조성해 문화·행정·주차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거점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볼링장과 롤러장, 스마트체육관 등이 저녁과 주말에 즐길 거리를 제공해 군민의 여가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대회 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민간사업자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볼링장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자 공모에 나섰으며, 2024년 11월 혜담 주식회사를 민간투자자로 선정해 시설 조성과 운영 준비를 진행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 순천의 맛·여름 감성 즐기는 ‘순천미식주간’ 팡파르

## 20~27일 정원예술제와 미식·공연·전시 선봬
## ‘맛과 예술이 만나다’ 주제…최현석 셰프 참여

순천시는 오는 20~27일 8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순천미식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순천미식주간은 ‘맛과 예술이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순천의 음식자원과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여름 미식축제로 추진된다. 사진제공=순천시청

순천시는 오는 20~27일 8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순천미식주간을 개최한다.

올해 순천미식주간은 ‘맛과 예술이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순천의 음식자원과 예술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여름 미식축제로 추진된다.

시민과 관광객은 순천 곳곳에서 먹고,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며 순천만의 맛과 감성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2026 순천미식주간은 20일부터 21일까지 남문터광장에서 현장행사를 운영하고, 이후 22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식투어·치유미식 트레일런 등 순천 곳곳을 잇는 미식여행으로 이어진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남문터광장 현장행사 기간에는 미식마켓·미식체험, 최현석 셰프 쿠킹토크쇼, 로컬셰프 토크쇼, 순천맛집 인증식,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도심 속 광장에 순천의 맛과 여름 감성이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이 먹고 쉬고 즐기는 미식광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현장행사는 예총과 함께하는 정원예술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꾸며진다.

순천의 맛을 즐기는 미식 콘텐츠에 공연, 전시, 체험 등 예술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문터광장 일원이 맛과 예술이 함께 흐르는 여름 축제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최현석 셰프 쿠킹토크쇼다.

대중에게 친숙한 최현석 셰프가 순천의 식재료와 지역 기업의 제품을 무대 위에 올려, 순천의 맛을 셰프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단순한 요리 시연을 넘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재료와 순천 기업의 정성이 한 접시의 미식으로 완성되는 자리로, 순천의 자원이 도시의 이야기로, 다시 관광객의 기억으로 이어지는 상생형 미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선보인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기회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2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식주간의 무대가 순천 전역으로 이어진다.

전통시장과 지역 공간을 연계한 미식투어, 낙안읍성의 정취를 담은 미식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걷고 맛보는 치유미식 트레일런 등 순천의 공간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2026 순천미식주간은 순천의 맛에 예술의 감성과 지역의 힘을 더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식탁이자 무대가 되는 축제다”며 “최현석 셰프 쿠킹토크쇼를 비롯한 다양한 미식·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순천의 여름을 더 맛있고 특별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곡성군은 지난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통해 총 3억3563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사진제공=곡성군청

# 곡성 농·특산물 판매 3억3000만원 돌파

## 장미축제 판촉활동 매진…관광객 호응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동안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액이 3억3000만원을 돌파했다.

곡성군은 지난 5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열린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통해 총 3억3563만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는 로즈팜마켓을 비롯해 곡성농협 APC, 석곡농협,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선보였으며, 멜론, 로컬음료, 흑찰옥수수, 현미, 누룽지 등 곡성을 대표하는 농산물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은 멜론, 블루베리, 장어, 상추 등을 중심으로 1억9595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판매실적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로즈팜마켓 또한 1억1604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운영한 우체국 무료 택배관을 통해 총 691건의 배송 실적을 올렸으며, 축제 기간에 곡성몰 신규가입자 8311명 유치에 성공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매 성과는 축제를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가 함께 이뤄진 의미 있는 결과다”며 “앞으로도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gwangnam.co.kr

# 장흥,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도약 ‘총력’

## 미흡분야 개선 방안 논의

장흥군은 최근 상황실에서 ‘2027년(2026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상반기 실적 마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지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도내 상위권 우수 시·군 도약을 목표로 지난 4월에 이은 두번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담당자 회의 개최 등 실적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량지표 83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95% 이상의 지표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고, 정성지표 13건에 대해서는 군만의 확산가능성 있는 사례를 발굴, 전 지표가 전남도 우수사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합동평가는 군의 행정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써 우수한 성적을 거둬 장흥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 고흥, 초여름 관광 연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 30일까지 운영…무작위 300명 1만원 쿠폰 제공

고흥군은 초여름 관광객 증가 시기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마련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초여름 바람 따라, 고흥애(愛) 나눔 여행’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에 고흥군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참여자는 자동 응모된다. 무작위 추첨으로 총 300명이 모바일 쿠폰 1만원권을 받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자들의 관심이 높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경품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참여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주요 관광지와 리조트 등 관광객 유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누리집·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가 서민호 선생 선양사업 등 지정기부사업 홍보도 함께 추진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군은 앞서 계절별 참여 이벤트와 민간 플랫폼 연계 홍보, 지정기부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대에 힘쓰고 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 광양,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 8월까지 배출사업장 대상

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시는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개조로 운영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폐수 무단 방류 △환경시설 비정상 운영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행위 등이다.

시는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과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한다. 7월부터는 악성폐수 배출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등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